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만민중앙소식

이 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news.manmin.or.kr

등록번호 : 다-1840(1989. 7. 12.)
편집처 및 발행소 :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 이재록
인쇄인 : 김신경
편집인 : 빈금선

서울 구로구 구로동 851번지 ☎02-818-7000
e-mail : manminnews@hotmail.com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제364호(구384호) 2008. 5. 4.(격주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17-18



‘섬김의 달’ 5월을 맞아



5월은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섬김의 달’이다. 이때 교회 곳곳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치러진다. 아동주일학교에서는 5월 4일, 2성전에서 ‘마귀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 (롬 6:16)라는 말씀(강사: 이수진 목사)으로 어린이주일 기념예배를 드린다. 학생주일학교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10일, 토요찬양예배에 부모님을 초청해 역할극, 감사 편지 낭독 등 은혜로운 시간을 갖는다. 이 예배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권사회 연합회에서는 11일, 2부 대예배를 마치고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께 정성스런 선물을 전하며, 교구에서도 어르신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 한편, 각 선교회에서는 스승의 날 행사로 지도교사와 부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더욱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도의 교제를 기대한다.



백 마디의 말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낮아지고 소외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향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을 반겨 주고 가까이 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거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는 등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의 향은 삶에 지친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며 백 마디의 말보다 진한 향기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해 줍니다.

글 · 이재록 목사
동아일보 연재 ‘실로암’ 칼럼에서



창립 1년 2개월 만에 1천여 명의 성도로 부흥한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만민교회(담임: 김석환 목사) 성전 이전 감사예배 (4. 20. 주일)

영국 ‘런던 국제 도서전’

이재록 목사 저서 영어판 전시

이재록 목사의 주요 저서가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영국 런던 얼스 코트(Earls Court London) 전시 센터에서 열린 ‘런던 국제 도서전’에 전시됐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영어판 5종(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 십자가의 도, 천국(상)(하), 지옥)이 소개됐다.

이재록 목사 저서는 17개 국어로 번역 출판되어 전 세계로 보급되고 있다.

‘런던 국제 도서전’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이탈리아의 볼로냐 아동 도서전과 더불어 세계 3대 도서전 중에 하나이다.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 오전 10:00 2부 · 오전 11:3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율·마리아]	오후 8:0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2부 · 오전 11:4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새벽 5:00	저녁 · 오후 1:30	

교회 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오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 ☎ 02-818-7391~5)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18-3845, 818-730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 우리은행 072-255732-02-201
- 농협 100072-52-061722
- 우체국 012419-02-047269



당회장 이재록 목사

기드온의 삼백 용사처럼

“...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향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달음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삿 7:15-23)

여룹바알(삿 6:32)이라 하는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 요아스의 아들로 40년 간 사사직을 수행한 이스라엘 5대 사사입니다. 미디안으로 인한 큰 피해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모여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자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표징을 구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구하는 대로 그 뜻을 재차 확인시켜 주십니다(삿 6:33-40). 그 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군사 3만 2천 명 중에 삼백 명을 선발해 향아리와 횃불만으로 미디안을 쳐 크게 승리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삼백 용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1.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의 삼백 용사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삼백 용사가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전투 상황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종다(衆多)함 같다'(삿 7:12)고 표현할 정도로 매우 불리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처음 군사를 선발할 때에 모인 장정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지요. 적군인 미디안 병력에 비해 그 수가 너무 적음에도 병력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백성이 승전의 공을 스스로에게 돌려 교만에 빠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삿 7:2).

그래서 2차 선발을 통해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 보내니 1만 명이 남았고, 마지막 3차에서는 길르앗 산에서 온종일 햇볕 아래 훈련을 받아 목이 탄 군사들을 물가로 인도해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때 무릎 꿇거나 혀를 물에 대고 허겁지겁 마신 자들을 제외하고, 완전 무장한 군인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신 군사만을 선발하니 겨우 삼백 명뿐이었지요.

3만 2천 명을 전쟁터에 모두 동원해도 이길 확률이 적은 상황에서 대부분 아군이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 남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저히 승산 없는 싸움에 나가 죽을 것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낙담했을까요?

기드온의 삼백 용사는 적군의 수효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삿 7:9) 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굳건한 마음으로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캄캄한 밤이 되자 손에 나팔과 횃불을 감춘 향아리를 들고 백 명씩 세 부대로 나누어 미디안 진영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다가 기드온의 나팔소리가 날 때 일제히 향아리를 부셨지요. 그리고 횃불을 번쩍 들고는 나팔을 요란하게 불

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삿 7:20)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이때 잠을 자던 미디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 나와 보니 나팔소리와 휘황찬란한 횃불이 언덕마다 활활 타오르며 달려오는데, 마치 엄청난 군사가 밀려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혼비백산해 달아나던 미디안 군사들은 서로 자기편을 칼로 찼고, 그 혼란을 틈타 기드온의 삼백 용사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 기드온의 삼백 용사처럼 믿음의 장수가 되려면

1) 긍정적인 고백과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병어리 귀신이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하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지요. 즉 그 아버지는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소문에 의해서 듣고 아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극한 상황을 만나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하신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실을 보고 이론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요. 이것은 지식적인 믿음일 뿐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육신의 생각이 있는 만큼 영적인 믿음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장수로 온전히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상에서 쌓은 경험과 이론, 교만과 자존심을 비롯한 자아와 세상 정욕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현실을 보는 육의 눈이 닫히고 믿음으로 보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중심에서 긍정적인 고백을 하며 믿음의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예컨대,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까요? 그 당시 여리고 성은 군사적으로 완벽한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견고한 이중 성벽과 가파른 경사 위에 있어 도저히 침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수 6:2)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았습니.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 주위를 7일 동안 열세 번 돈 뒤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외쳤지요. 그러자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져 여호수아와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믿으므로 긍정적인 고백과 행함이 있을 때에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2)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이나 타협과 양보가 없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강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함’이란, 진리와 참된 것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강함을 나타내셨을까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꺾져 가는 심지를 꺾지 않는 온유함으로 나타내셨습니다(마 12:19-20). 또한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데도 아무 때나 이를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지요. 영혼 사랑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며 감사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래 참음으로 선과 진리를 좇아 행할 때 영적으로 온유한 참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중심이기 때문에 흉악의 결박을 풀며 어두움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담대함’이란 무엇일까요? 육적으로는 성격이나 성품이 거침없고 겁과 두려움이 없으며 용기가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담대함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믿고 신뢰할 때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아버의 양을 지키는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움켜 가면 그것을 따라가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나 온 이스라엘 군사도 두려워 떠는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 승리했지요(삼상 17:31-49).

또한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450인의 바알 선지자와 400인의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왕상 18:16-4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병사의 사기와 정신력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긍정적인 고백과 행함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으로 믿음의 장수가 되어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1천 만 원 고료 이재록 목사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 독후감 공모

- 접수기간: 4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 응모방법: 1) 우편 152-879 구로구 구로동 851(우림북)
2) 이메일 urimbook@yahoo.co.kr
3) 우림북 홈페이지 www.urimbook.com

- 시상: 대상 1명(300만 원), 최우수상 3명(각 부문별 100만 원)
우수상 3명(각 부문별 50만 원), 장려상 5명(20만 원)
격려상 50명(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또는 우림북 도서 중 택)
- 문의전화: 우림북 (02) 837-7632, 818-7325

오월이면 더욱 그리운 이름, '선생님'

• 이 동 립 장로 (1-1교구, 수도여고 교사)



28년 동안 교직에 몸담고 한국사와 세계사를 가르쳐 온 이동립 장로.

그는 군(軍)을 제대하고 처음 교단에 들어선 날이 엇그제 일 같다고 말한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혼신을 다해 수업에 매진하던 기억은 물론, 문제 학생의 학부모를 대신해 경찰서에서 선처를 구한 일,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과 야영했던 일,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준 카드에 적힌 글을 읽고 또 읽으며 감동받던 일 등 제자들과 함께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가장 맑고 깨끗한 곳이 학교이며,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무한한 가능성의 보고(寶庫)가 학생들이라고 그는 말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든 학업에 관심 없는 말썽꾸러기 학생이든 그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는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 없죠. 그들의 잠재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항상 즐겁습니다.”

그의 교직 생활에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다.

“1991년 12월에 아내(유금순 권사)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왔지요. 말씀을 듣다 보니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회개가 되더군요. 즉시 술과 담배를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했지요. 기도생활을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아팠던 중이염도 치료되고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되는 시간이었죠.”

제자들을 아낀다고 생각했지만, 모범 학생이란 틀에 끼워 맞추려 한 자신을 깨닫고 더욱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비단 지식만 공급하는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되고자 했다.

말은 반 학생과 학부모님의 일터, 그 가정을 위해 매일 기도했다. 학업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학생을 보면 기도하면서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관심과 사랑을 표현했다. 그가 더 많은 학생에게 주님 사랑을 전하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립에서 공립학교로 옮겨 서울 전역을 다니며 다양한 학생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

“담당 과목이 역사이니만큼 인류 기원과 이스라엘 역사, 유럽 중세사 등을 가르칠 때 인간경작과 천국, 지옥 등 복음을 접목해 수업합니다. 맑고 순수한 학생들 마음에 진리를 바로 심겨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는 제자들을 향한 애정 어린 기대를 내비친다.

글·임정미 manminnews@hotmail.com

페루에서 온 편지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얼굴도 까맣게 태웠어요”

금·금·해·요

다른 공간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안녕하세요?

2007년 1월 17일 아빠 목사님(페루 만민교회 장정연 목사) 사역지인 페루로 이사 온 장지현 자매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 낯선 곳에 오니 모든 것이 몹시 어색하고, 무엇보다도 스페인어를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학교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말 한마디 못하니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 집에 오는 것이 전부였죠.

GCN 방송을 통해 서울 만민중앙교회에서 매일 밤 열리는 다니엘 철야에 함께하며 주님께 기도했어요. 빨리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학교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낼 수 있게 해 달라고요.

기도하니 용기가 생겨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손짓발짓하며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페루 친구들과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방과 후에 꾸준히 공부를 해서 1년이 지난 지금은 스페인어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잘 지내 친구가 아주 많답니다. 친구들과 더 친해지려고 일부러 얼굴도 까맣게 태웠는데, 저를 보고 친구들은 “너도 이제 페루 아이가 다 됐구나.” 하며 즐거워해요. 또 한국 생활과 문화를 이야기 해주면 아주 좋아해요.

이곳 아이들은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나 기도, 성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주일학교 보조 교사를 한답니다. 한국에서 당회장님께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알려 주면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항상 페루 만민교회와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아주 많이 보고 싶어요. 저도 작은 선교사로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Qué Dios los bendiga!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2008. 4. 16. 페루 리마에서 장지현 자매 올림

얼마 전, 우리나라도 우주인 1호가 배출되어 위성을 통해 우주 생활을 직접 듣고 볼 수 있었다. 이는 국민들에게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적 자연 현상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주에서 하루라는 시간 개념은 일상에서의 하루라는 개념과 달랐다. 지구에서는 태양이 한 번 뜨고 질 때가 하루인데 반해 우주에서는 열네 번 태양이 뜨고 저야 하루인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 흐름의 차이란 어떤 것일까?

두 개의 수영장이 있는데 한 곳에는 물을 허리 정도 채워 놓았고 다른 한 곳에는 끈적끈적한 진흙을 허리 정도 채워 놓았다고 하자. 두 사람에게 각각 수영장에 들어가 최대한 빨리 건도록 했다면 누가 빨리 걸을 수 있을까? 진흙 속을 걷는다면 한 걸음 떼기조차도 쉽지 않겠지만 물속을 걷는 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수월할 것이다. 바로 이런 원리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사이에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육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마치 태어나서 지금까지 진흙 속에서만 생활했다면 이 사람은 물속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흙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속도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면 물속만 걸었던 사람이 진흙 속을 걷는 사람을 볼 때 어떨까? 아무리 빠른 속도로 걷는다 해도 매우 느리게 보일 것이다. 반대로 지금까지 진흙 속만 걸었던 사람이 물속을 걷는 사람을 본다면 당연히 빠르게 보일 것이다.

영의 세계에서 시간의 흐름이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면 육의 세계에서 시간의 흐름은 마치 진흙이 흐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는 더 큰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이다.

성경을 통해서도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시간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공간에 따라 시간 흐름이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멈출 수도 있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다.

'창세기 강해' 중에서 창조선교회 제공

성인오락 중독과 공황장애에서 벗어나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 양 태 승 성도 (광주만민교회)

1995년, 스물다섯 살에 나는 다단계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충격으로 공황장애(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 상태가 나타나는 장애)를 앓았다.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늘 불안감에 휩싸여 살던 나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폐품수집을 시작했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폐품과 고물을 수집한 수입은 제법 짭짤했다.

성인오락으로 인해 망가진 삶, 정신 병원까지

2002년 초여름, 뜻하지 않은 불청객이 내게 찾아왔다. 당시 한창 유행이던 성인오락실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돈을 버는 대로 발걸음은 성인오락실로 향했다. 따는 날보다 잃는 날이 많았다. 그때마다 나는 이성을 잃었다.

“돈 어디다 숨겨져? 빨리 내놔! 빨리!”
“숨기긴 어디다 숨겨? 이젠 진짜 없어!”

돈을 몽땅 잃고 나면 분풀이로 아내를 폭행하고, 또 다시 성인오락을 하기 위해 칼까지 들이대며 어떻게든 돈을 타냈다.

다시는 성인오락실에 안 가겠다고 수없이 다짐해 보지만 인력으로는 안 됐다. 말려도 보고 갖은 애를 써도 소용이 없자

사랑의 간구는 삶의 용기와 변화를 가져오고

2005년 봄, 평소 가깝게 지내던 광부녀 집사님이 만민교회를 소개하며 전도했다. 하나님의 권능과 치료 역사가 나타난다기에 광주만민교회에 따라나섰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술, 담배를 하며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나도 믿음으로 치료받겠다며 약을 끊었다가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다시 복용했다.

내가 다시 광주만민교회를 찾은 것은 2007년 9월이다. 광부녀 집사님이 1년 반이나 우리 가족을 위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한 것을 안 것이다.

박형렬 담임목사님과 일꾼들은 매일 찾아와 나를 위해 한 달 동안 작정하여 기도해 주었다. 새 삶을 열어야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그러나 참 믿음은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성인오락실에 출입하고 술, 담배를 끊지 못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리, 하나님 잘 믿어 봐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아내 말이 나를 감동케 했다. 술, 담배와 오락을 끊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당회장님께 기도받기 위해 준비했다.

2007년 12월, 서울에 올라온 나는 당회장님을 가까이서 처음 보았는데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

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다. 그 뒤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았고 성인오락실도 안 갔다.

거듭난 삶에 찾아 온 행복

고물상 수입이 꽤 괜찮은 날이었다.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하자 순간, ‘성인오락실에 한 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틈탔다.

“안 돼! 당회장님께 기도까지 받았는데 그럴 수는 없어. 아주 끊어 버려야 해.”

“오늘 오전 11시경, 광주광역시 금호동 성인오락실에 화재가 발생해 손님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던 나는 얼얼불고 말았다. 바로 화재가 난 곳은 내가 늘 다니던 단골 오락실이었고, 바로 그날이 가고 싶은 충동을 이긴 날이었던 것이다.

“아빠! 입에서 담배 냄새 안 나니까 너무 좋아!”

내가 술, 담배를 끊자 예전에는 내 옆에 가까이 오지 않던 아들 동선이 요즘에는 자꾸 내 품에 와 안긴다. 나 때문에 늘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온 아내는 얼굴이 활짝 피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처음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당회장님의 음성전화사서함 3분 설교를 들은 뒤 환자기도를 받는다.

13년 된 공황장애는 나도 모르는 사이 치료됐고 대인공포증도 완전히 사라졌다. 사람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 한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

Table with 4 columns: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Includes addresses and phone numbers for various churches across Korea.